전남 지자체 '포스트 코로나' 체제 전환…경제 살리기 '올인'



코로나19 대응이 생활속 거리두기로 완화됨에 따라 해남군은 공룡화석지, 땅끝관광지, 황토나라테마촌 등 관광문화시설을 6일부터 재개장했다. 〈해남군 제공〉



광양시는 지난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현복 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 열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광양시 제공〉



진도 유일의 관문인 진도대교가 통제 76일만인 지난 6일 전면 개통됐다. 진도군은 코로 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2월24일부터 진도대교를 통제, 모든 차량 탑승자에 대해 발 열체크를 진행했다. 〈진도군 제공〉

전남 지자체들이 '포스트 코로나'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생활 방역 메뉴얼을 만들고, 코로나19 이후 급변이 예상되는 경제·관광·교육·보건환경등 분야를 아우르는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지역발전의 명운이 달린 지역현안 사업의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빗장을 걸었던 관광지와 문화시설을 열어 방문객들을 손짓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생활 방역을 더욱 촘촘히 하고 있다.

◇국가예산 확보 '총력'

광양시 등 전남 지자체들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광양시는 오는 19~20일 이틀간 시장·부시장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계획을 세웠다. 5월 말까지 지역 현안사업을 국비에 반영해기재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각 실·국장을 6일부터 15일까지 전남도에 보내 현안사업 및 예산을 설명·공유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중점 추진 사업으로 21건 367억원 확보를 목표로하고 있다.

보성군도 '국비 확보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내실을 기하고 있다.

보성군은 당초 농림 축산 분야를 우선 사업에 배 치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해진 만큼 관련 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예산 배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세종사무소를 통해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타당성 과 사업비 확보 방향 설명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경기 부양에 '올인'

지자체들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노인 일자리 등 공 공 일자리 시업 재개와 경기 부양에 힘을 쏟고 있다.

해남군은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목표를 둔 '해남형 경제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추경과 해남형 지원정책을 혼합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는 K+해남형 경제방역 체계를 구축한다.

공공부문 선구매·선결재를 통한 내수 조기 창출, 정부 긴급재난지원급·해남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을 통한 민생안정, 소상공인 추가 지원, 농수산업과 문화관광, 청년·일자리 등 분야별 지원대책이다. 하 반기 계획된 축제·행사 계약도 조기 체결하고 최대 80%까지 선지급한다.

진도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노인일자리 사업을 재개한다. 올해 87억8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개 사업을 실시, 2584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일자리는 공익활동형과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등 3개 분야로 게이트볼·파크골프

자회시미그용 등 3개 분야도 게이트를 퍼그들는 강사 파견, 관광지·해안가 환경정비, 스쿨존 교 생활 방역 메뉴얼 만들고 현안 사업 국비 확보 총력

진도군 노인일자리 사업 재개 화순군 공공근로 참여자 모집 완도군 해양치유 프로그램 목포·해남 관광객 유치 박차 곳곳 문화시설 재개관 준비 등 다양한 경기 부양 정책 펼쳐

통질서 계도, 노노케어 등 20개 사업을 추진한다. 화순군은 11~15일 닷새간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16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50명 등 총 210명을 모집한다.

◇멀리했던 관광객 '손짓'

완도군은 코로나19로 시작하지 못했던 '봄 그리고 힐링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오는 15일부터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일원에서 시작한다.

해양치유 프로그램이란 깨끗하고 청정한 자연환 경에서 해양치유자원(해양기후, 해수, 해양생물, 해양광물)을 활용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몸과 마음 을 치유하고 재활을 돕는 건강증진 활동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총 8회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해양기후를 활용한 노르딕워 킹, 필라테스, 자이로키네시스, 요가, 명상 등의 해 변 아웃도어 프로그램과 해수와 다시마 등 해양생 물을 이용한 해수찜, 청산도에서 자란 보리를 이용 한 검정보리커피와 꽃차 시음, 다양한 해양치유 음 식 시식 등이다.

지자체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문화관광 활 성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목포시는 이달 말 대반동 해안에 스카이워크 포 토존을 개장하는데 이어 6월 중 관광거점도시 선포 식을 통해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를 대·내외적으로 호보하다

이후 목포 항구 포차 개장과 관광유람선 취항, 장 좌도 해양관광리조트 및 바다분수 해상무대 착공 등을 통해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분위기를 고 양해 나갈 방침이다.

목포시는 위축된 여행심리 회복과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 마케팅 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각종 관광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 한국관광공사 '야간관광 100선'홍보, KTX·SRT 및 벤츠 매거진을 활용한 목포관광홍보,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추진 등을 통해 낭만항구 목포의 매력을 널리 홍보한다.

또 목포 항구 버스킹 개최, 음식거리 활성화 행

사,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씨티투어 운영, 춤추는 바다분수 운영, 외달도 해수풀장·해수욕장 개장 등을 통해 관광객들의 목포 여행 심리를 자극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관광추진조직(DMO)과 각종 미디어를 통한 마케팅 활동도 연계해 나간다.

해남군은 상반기 운영이 중단된 각종 축제와 행사, 여행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마케팅에도 32억6200만원을 투입한다.

◇문화시설 단계적 재개관

전남지역 문화시설은 지난 6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관하고 있다.

보성군은 이날 제암산자연휴양림과 전남권환경 성질환예방관리센터의 운영을 재개했다.

9일에는 율포해수녹차센터를 비롯한 봇재, 한국 차박물관, 다항체육관, 보성국민체육센터, 벌교스 포츠센터가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방진관, 벌교 (구)금융조합, 군립백민미술관, 충절사, 보성농어 촌공공도서관, 보성판소리성지, 홍암나철기념관도 문을 연다. 12일에는 태백산맥문학관이 오픈한다.

목포시는 지난 6일 춤추는바다분수, 고하도 전망대, 목포자연사박물관, 목포 생활도자박물관, 목포 어린이바다과학관, 목포 문예역사관, 목포근대역사관 1·2관, 목포문학관, 목포종합예술갤러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등 13곳의 문을 열었다. 종합관광안내소 등 5개 관광안내소도 운영을 시작했다.

목포시립도서관, 목포 영어도서관, 목포어린이 도서관 등 19곳도 운영한다.

무안군은 8일부터 오승우미술관을 시작으로 초 의선사 탄생지, 밀리터리테마파크 등 문화·관광시 설 30여 곳을 순차적으로 재개장한다.

무안군은 이날 오승우미술관과 무안군 공공도서 관 및 작은 도서관 22곳의 문을 연다. 또 11일에는 무안군립국악원와 관광안내소를, 12일에는 분청사 기 명장전시관, 초의선사 탄생지, 밀리터리테마파크 가 재개장할 예정이다. 승달문화예술회관은 대규모 인원의 이용을 고려해 6월 중 재개장할 방침이다.

경로당과 아동복지시설 등은 중앙부처 지침이 확 정되면 재개관한다.

◇생활방역 더 촘촘히

지자체들은 운영 재개 시설의 방역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이용자 간 거리가 가급적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생활방역 관련 자체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출입자 발열 체크·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도 더욱 엄격히 관리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문화·관광시설 이용객은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 및 보조수칙에 따라 시설관리자의 게시·안내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